

‘공모주, 개인 몫 확대’ 독 든 성배 될 수도… 증권가 우려

정부, IPO 공모주 제도 변경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기관보다 정보 접근성 떨어져
개인 손실 확대 부작용 우려도

개인투자자배정 물량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공모주 제도변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SK바이오팜부터 시작된 ‘공모주 열풍’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되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영끌’ 요인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식었을 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 공모주 물량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PO 시장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 청약자에 배정되는 공모 물량은 20%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조합원에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던 지난달 5일 한 개인투자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자 몫이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개인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히려 간접투자 장려해야”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개인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한 개선안이 오히려 투자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IPO 시장에서 만

큰 간접투자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관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가격 결정 능력도 없어서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증권발행시장은 성공적인 물량 소화를 위해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 증권사와 기관 간의 계약 시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 불균형이 심한 만큼 개인은 직접 투자와 공모주펀드 투자 등 간접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모주 열풍 당시 나타났던 양극화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일반투자자 경쟁률은 24.7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청약 미달 가능성도, 인수증권회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진다.

김중곤 NH투자증권 ECM(주식발행시장)본부장은 “개인이 청약,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배정을 많이 받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올해 IPO시장이 핫 마켓으로 형성됐

다고 개인 물량을 확대하면 고스란히 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같은 인기 상장주가 시장 기대치를 높여 놓았지만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매력 없는 종목이란 인식이 커질 것”이라며 “개인 물량을 10% 안팎 늘려 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 금융당국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주가 초과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해 제도를 바꿨다가 개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투기적 성격이 짙어진 현재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종목의 공모주 산정 논란도 그렇고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신규 상장종목의 주가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심리로 자금이 몰렸는데 공모주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하 기자 alvin@metroseoul.co.kr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 ‘팝’ 구독자 11만명 돌파

자산관리용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
초보부터 고액자산가들 니즈 부응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 팝(Samsung POP)’ 구독자 수가 23일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저금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증시에 유입된 이른바 언택트 투자자들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것과 함께 투자정보도 기존 텍스트보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증권사 유튜브 정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런 개인투자자를 위해 디지털상담팀·FT팀 등 전담 상담조직을 마련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종목 및 산업·시황 등에 대해 동영상리포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 팝’ 구독자 수가 23일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

트와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투자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또 단순 주식 정보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세무·부동산컨설팅 등 초보투자자들부터 고액자산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용 동영상 콘텐츠도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

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의 시너지를 통해 삼성증권은 작년 말 5000명 수준이던 구독자 수를 11개월만에 20배까지 증가시키며 구독자 11만명을 달성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Advertorial Corner

안산시화호 일대 첨단 복합도시로 재탄생

대학교 캠퍼스, 국가어항 등 조성

안산 시화호 일대가 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화호 일대를 월곡 국가어항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오이도 지방어항, 시화MTV 개발 등 ‘K-골든코스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K-골든코스트는 월곡에서부터 시화 MTV까지 15km가량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은 시화호 일대 핵심 거점을 연계해 첨단산업, 의료, 레저관광, 문화시설 등을

집약한 해안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먼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월곡항에 300여억원을 들여 부족한 어항 용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준설을 통해 선적 입항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광 어항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학교도 이원화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현재 교육협력동,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시흥캠퍼스내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는 등 의료시



안산 반달섬 조감도.

설까지 마련한다.

시화호 북쪽에서는 복합도시개발사업인 시화MTV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화MTV 사업은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유통 등의 기능을 확립하고 시화호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이용한 관광·휴양·주거 등의 기능이 조화된 21세기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혈액암 등 정밀진단 혁신기업 도약”

IPO 간담회

엔젠바이오

6개 제품 유럽 의뢰기기 승인
서울대병원 등 16곳에 공급
美 진출 위해 CLIA 인수 추진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가 23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엔젠바이오에는 K-T와 젠큐릭스의 합작법인으로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 기반 유방암·난소암 정밀진단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는 등 NGS 기반의 유전자 진단 분야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NGS 기술은 유전체를 조각내어 수많은 조각으로 만든 후 각 조각의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PCR(유전자 증폭) 기술과 다르게 대용량으로 생산한 염기서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엔젠바이오는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정밀진단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관련 제품, 암 조직을 검사하는 고형암 관련 제품, 백혈병 등의 혈액암 관련 제품을 상용화했다. 정밀진단제품 중 6개 제품이 유럽 해외진단 의뢰기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16곳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하여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또 엔젠바이오는 상용화된 정밀진단 제품을 활용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23일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IR 큐터스

동반진단 제품을 개발 및 임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에서 19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내 CLIA 랩을 인수할 계획이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이사는 “미국은 FDA 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주정부로부터 CLIA 랩에서 검사하는 항목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환자 대상 검사가 가능하다”며 “한국 본사에서 검사에 사용할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의 CLIA 랩에서 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정밀진단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엔젠바이오의 상장주권사는 삼성증권으로 총 공모주식수는 244만4000주다. 공모가 밴드는 1만500원~1만4000원이며, 공모금액은 257억원~342억원 규모다. 오는 24일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후, 12월 1~2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은 12월 중순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